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91호 현대불교

21

2012년 6월 6일(음 4월 17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내 마음의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모두 맡기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남): 그런데 마음의 공부, 저는 여기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제 가슴에 닿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듣고 싶어서...

큰스님: 그러면 열심히 모든 것을 내 앞에 다치는 대로, 아까 얘기했죠. 불바퀴에 맡겨놓으면 부셔지고 타고 시신도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업보라든가 유전성이라든가, 영계성이라든가 인과성이라든가 그런 게 무조건 바로 타버린다고요. 녹아 없어진다고요. 그러니 열심히 하십시오.

질문자1(남): 불바퀴라는 것이 마음을 뜻하는 겁니까? 아직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큰스님: 그건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질문자1(남): 예, 감사합니다.

큰스님: 한 걸음 한 걸음, 국민학교 학생이 대학교를 가려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하시려면 알게 되겠죠. 우선에 모든 것은 자기 한마음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들고 나는 모든 것은 거기라고 믿고 거기에 맡기고 사십시오.

어떻게 해야 공부를, 마음의 공부를 잘 하는 건지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잠시 말 씀을 멈추시고) 없습니까? 허허. 그래요. 항상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 하느냐고. 그런데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空)해서 아니,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내가 아니라고요. 아버지가 됐다가 남편이 됐다가, 형님이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사위가 됐다가 온통, 그리고 또 그것뿐입니까?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 맘 가졌다가 저 맘 가졌다가 그러니 어떤 거 할 때 여러분이라고 할 수 없으니 공해서 여러분은 공한, 한 물건입니다. 그 물건이 너무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놈이겠습니까? 다, 한 놈이지, 한 놈이란다 또 절 욕하지 마십시오. 하다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하는데, 그러니 이것부터 알아야 하나로 돌아가는 걸 알죠. 네? 여러분이 모두 하나로 돌아가는 거 무(無)와 유(有), 이 세상만사가 하나로 돌아가는 거부터 알아야, 그거 부터 알아야 그 하나마저도 없는 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저 누구 말따따 모야모야 다치는 대로 이놈이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하는 거니까 이놈이 해결할 수 있고, 이놈이 하는 거니까 이놈이 성사를 시킬 수도 있고, 이놈이 하는 거니까 이놈이 우울한 것도 우울치 않게 할 수도 있고, 즐겁게도 할 수 있고, 아주 비관을 사게도 할 수 있는 이놈이 바로 그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이 공부를 해서 뭐, 누구 주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라와 국민 아니, 세계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반의 중생들, 그런 사람들을 다 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실천을, 공행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만이 나도 좋고 심국이 웃을 수 있고, 여러분도 좋고 심국이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도리를 통달한 분이 한 번 웃는데, 이 우주법계가 다 웃는다고 그랬습

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나한테 질문할 게 없습니까? 만약에 이 대답을 한 번 하면 내 상을 주죠, 또 우리 스님네들은 말고요. 과거가 현실이고 현실이 과거라면 어떤 게 좋겠습니까? (부족을 받으면서 나오고 있는 여신도를 보시며) 상 받으려고 애를 쓰네. 허허. (대중 웃음)

신도3(여): 스님, 저는 대구 사는데요 스님, 그 질문하신 그것은 현재 아닙니까? 현재. 그런데 스님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겠죠. 제가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 87년 7월 15일날, 교통사고 났거든요. 그래서 제 말이 그렇습니다. 스님, 이해하세요. 스님이 질문하신 그 대답은 현

재 아닙니까?

큰스님: 현실이라고?

신도3(여): 네.

큰스님: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보이시고) 그렇게, 그렇게 물질세계에서 우리가 상상해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걸 보고 말하는 건 아는 게 아닐세.

그전에는 땅 속에 씨를 뿌려서 자라게 했고 씨이 나오도록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해나왔는데, 인제는 좀더 거름도 줘야겠고 좀 북도 돌아줘야겠고, 이러니까 하나하나가 언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릇이 커져야나도 그릇이 커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작으면 작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지. 만약에 건

방지게, 요만한 (물컵을 들어 보이시고) 그릇에다가 한 드립통을 붓는다 해봤던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요 종자라면 나도 종자일 수밖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 현재의 가정을 열심히 이끌어가고, 조화를 이루고 화목을 도모해서, 항상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고 부드럽게 말해줄 수 있고, 모든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내 탓으로 돌리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앞으로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만 해나갈 수 있다면 큰 대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반면에 모든 산천초목을 다 근본으로 마음에 두고 양식삼아 정말이지 여러분은 대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젊은 분들이라고 해서, 이 속에서 이런 게 나온다고 해서 '아하,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는 내 주인공이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니까.' 굳이 이런 말을 안 해도 아시겠죠.

예전에 어느 스님이 팔죽을 쑤다가 팔죽이 부글부글 끓으니까 그거를 주걱으로다가 "요놈도 문수! 요놈도 문수! 요놈도 문수!" 그리고 주걱으로 쳤답니다. 그랬듯이 여러분은 이 속에 지금 악업 선업이 잔뜩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울 지어서 악업 선업이 속에서 들끓다 나오는 거는 어떤 사람 어떤 술에서 방울방울 지어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팔죽 술에서 팔죽이 끓는 소리죠. 그러니 그것도 그 사람이 한 거고 그것도 그 사람이 한 거고, 그 팔죽 하나하나 방울방울 올라오는 거 이런 거 치미는 거, 보고 듣고 비위 상하는 거, 나라를 원망하고 또 시대를 원망하고, 내 가정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온통 친구를 원망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것은 바로 넘바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갈이 찢어진 냥마.

그러니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맡겨놓고 '네놈이 이끌고가는 거니까, 내가 속에서 불화가 일어나도 바로 네놈이 가리얏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하고 거기에 맡겨놓을 때 비로소 행복감이 젖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인물이 돼서 나중에는 수천 수만을 이끌고간다 하더라도 한 명, 자기 발로, 즉 말하자면 이런 거 알죠. 수천 명을 끌고 간다 하더라도 하나도 걸림 없이 끌고갈 수 있다. 돈벌레가 다리가 그렇게 많아도 하나도 거침없이 끌고갈 수 있다 이런 소리나 똑같습니

그림 · 최주현

22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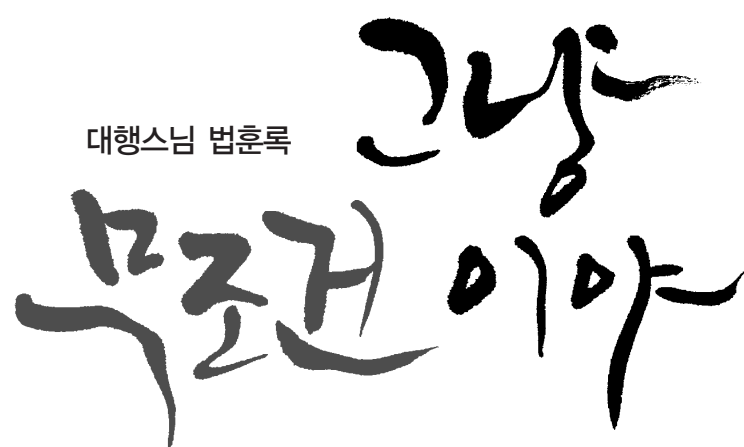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헌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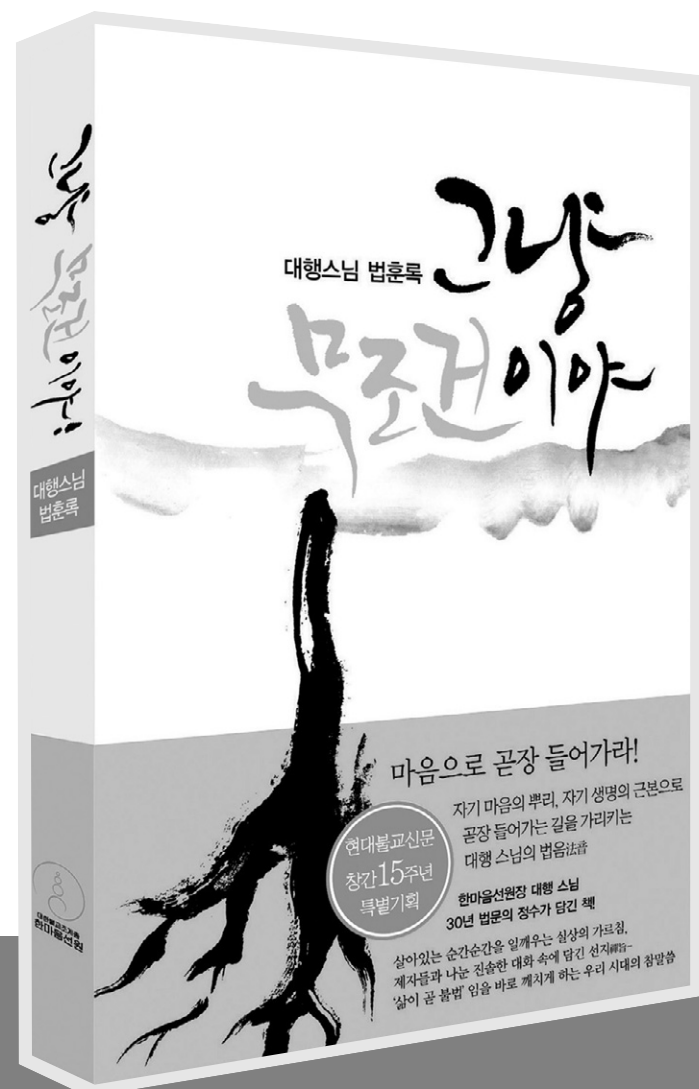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헌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 스님의 법음 法音

현대불교신문 창간 15주년 특별기획
한마음선원장 대행 스님
30년 법문의 정수가 담긴 책

살아있는 순간순간을 일깨우는 찬양해 거르듯,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禪旨)-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세상만사 무상한 걸 알아야 각오가 뚜렷해져요

21면에서 계속

다. 그게 내 발이나가. 내 마음이지요. 내 발이요. 바로 내 마음내는 것이니 그대로 등걸에 모가 안 나고 여여하게 그 돈벌레가 다리가 그렇게 많고 그 어디 걸리지 않고 가듯이...

이 마음이라는 건 바로 실체가 아니어서 큰가 하면은 작고, 작으면 작은 겁니다. 여러분 사계절도 사계절 나뉘어 있습니다. 보세요, 가을이 돼서 장마가 크게 드는 때도 있고 적게 드는 때도 있고, 사람이 많이 피해 보는 때도 있고 적게 피해를 보는 때도 있습니다. 이게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을도 가을 나름이요, 봄도 봄 나름이요, 겨울도 겨울 나름이다 이겁니다. 여름도 여름 나름이고,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어서 업보를 만들고 유전을 만들고 인과를 만들고, 그저 이 세균도 업신여기고 저런 지렁이도 업신여기고, 여러분 뱃속에 있는 지렁이도 있고 전부 있습니다. 여러분 뱃속에 없는 게 없이 모습도 아주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나, 그놈들이 소임을 맡아가고 운행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아주 떳떳하게 이렇게 사랑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이려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업신여겼습니까? 여러분이 저 벌레를 보면 아주 징그럽다고 하죠. 나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모습은 그렇겠지요. 그러나 마음 이야 어찌 둘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마음이 착하고 어질고 참 욕심 없는 사람이 돈을 왕창 벌었을 땐 남하고 같이 나눠 쓰지만, 마음이 강하고 아주 욕심 많고 그냥 못된 사람이 돈을 왕창 벌면 그거는 허튼 데다 쓰는 겁니다. 나쁜 짓만 하죠. 그러듯이 우리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짐승들도 모두 그렇죠. 그래서 독 있는 풀이 이슬을 맞으면 그 이슬은 아주 잘 흡수와 같은 물인데 그 독풀이 빨아들이면 독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약풀이 마시면 약이 된다 이거야, 사람을 살리는 응? 이리나 누구 탓입니까, 이게 다? 다 여러분 탓이지. 이 모두가 여러분이 사람 업신여기지 말고 항상 가정에서도 배신을 당했다 하더라도 아들이 공부 잘 못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탓으로 돌리라는 얘깁니다.

지금 여기 선원에는 정신이 좀 잘못된 이러한 분들도 많고 백혈병이니 또는 골수암이니 또는 무슨 암이니 속았으니, 뭐 별 병이 다.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들을 다 가지고 여기 재료로 삼아서 읍니다. 그러나 그게 재료지 여기에 의사가 있어서 병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다가 맡기고 거기서 해결해야지 누가 해결을 합니까? 몸속에도 중생들이 소임을 맡아가고 다 하고 있는데 모든 자기입니다. 자기. 음?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 하나하나의 세균이 여러분이 아

니고 탄 분입니까? 그러니까 각각 다 소임을 맡아가고 하는데 거기서 파업을 일으켜서 잘못된 거라면 거기서 가라앉히고 거기서 낮게 해야죠. 안 그럴까요? 그래서 70% 정도는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전부터 말을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몸이 피곤하고 병이 들면은 인간이 허무하고 정말이지 살 맛이 안 나고 죽고만 싶고 허망하기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허망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만사가 무상(無常)한 것을 알면서 도리어 이가 앓다물어지면서 나는 이 도리를 알아야겠다는 그 각오가 뚜렷하게 씩니다. 오히려. 언제가

이끌어보십시오. 그럼 오늘 질문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난 오늘 이것으로써 마쳐겠습니다.

눈으면 이 몸뚱이는 쇠약해지죠. 저 나무도 늙어서 고목이 되면은 껍데기가 흐지흐지해지고 진물이 나고 그래요. 사실은 제가 채공도 해보고 공양주도 해보고 또는 불목도 해보고 여러 가지들 했습니다. 안 해본 것 없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했죠. 물지계를 안 졌나, 물지계 지는 건 그냥 한 번 이렇게 지는 게 아닙니다. 일전을 가지고 가면 오후에 한 통씩이니까 그 일전을 가지고 가면은 한 지계죠. 한 지계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서 그걸 받아서 지고 와야만 했습니다. 지금처럼 사쓰고 있고 신발이 올바른 게 있었다

신민반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랬으니까요.

이 무심(無心) 도리라는 것이 전체... 이게 고만둔다고 하고 또 자꾸 말을 해서 안됐습니다만... 아니, 그거를 보이지 않는데, 내 몸이 보이질 않아야 가지고 가지 않느냐 이겁니다. 내 몸이 보이는데 붙잡히지 그게 붙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붙잡히지 않는 그런 도리를 아주 밤이면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는, 그냥 드러누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눈물이 흐르고, 세상이 각박하다보니까는 먹을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입을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신을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런 데다가 부모 밑에서 사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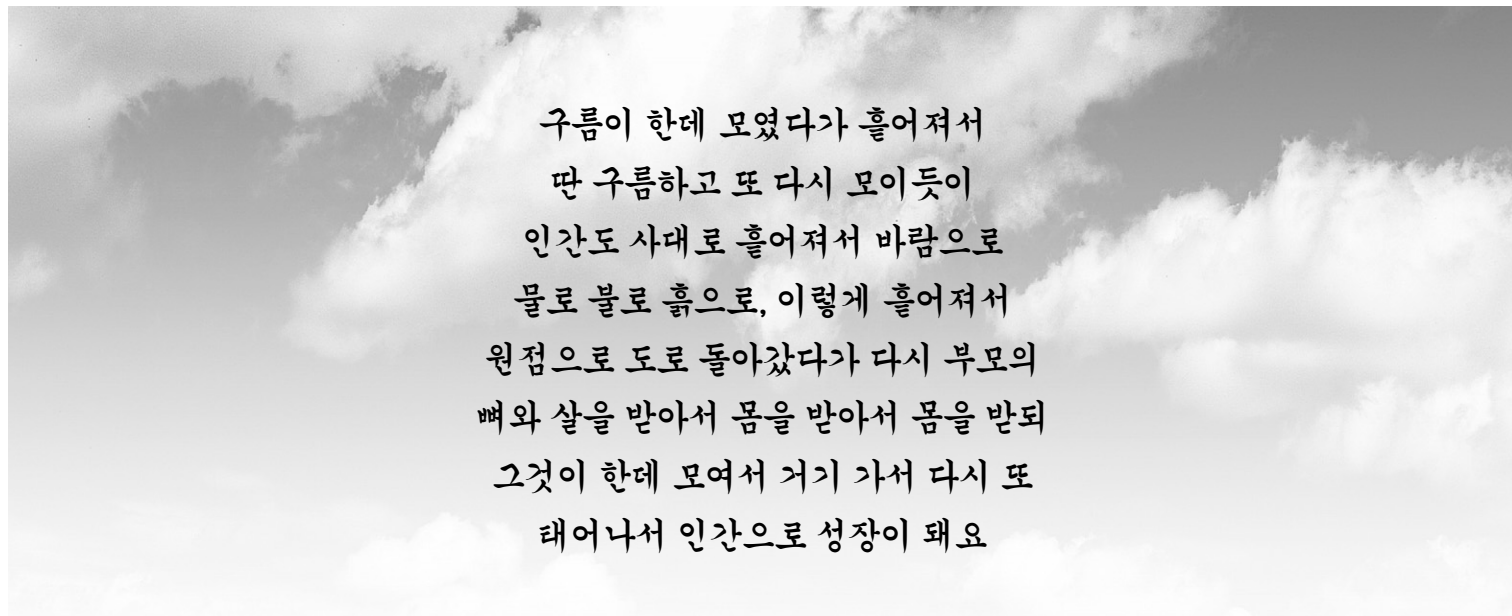
하러든, 황야야, 그냥. 그 황야를 그때에 보는 그 심정이야. 키 하나를 들고 어린 동자가 키 하나를 들고 나섰다가 이거야. 갈 데 못 갈 데 뒤, 증명해놓은 무슨, 아니, 그 주막이 있습니까? 이 진리라는 건 주막도 번지수도 없는 겁니다. 끝도 기약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갈 자리를 마련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키 하나 들고 그냥 나섰죠.

그 키는 누가 줬느냐고요? 허허허. 은사죠. 내 은사. 내 은사는 내 가슴에 있었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저 키를 집어라.' 그 남이 내버린 키야. 이거를 하나 집고 그걸 몰랐단 말이야, 글썽. '그 키를 집어라.' 집었지. '이걸 가지고 가자.' 가라 이거야. 그걸 들고서 가다가보면은 또 바닥이 차면 그걸 깔고 앉고 그랬지 뭐, 모르니깐 허허허. 나 참 재미있게 살았다고. 얼마나 인생을 재밌게 살았는지... 여러분은 그런 맛을 못 볼 거야, 아마. 못 봤을 거야. 음. 그 어디 가서 앉았으면, 돌에 앉았으면 그것 깔고 앉았고, 풀에 앉았을 때에 따라서는 그것 깔고 앉고 아,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그것이 현현히, 그 키가 그 키가 아니라, 키가 아니라 키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당신은 정말 이 세상을 쥐도 바꿀 수가 없는 당신이지, 당신을 보고 싶소.' 하고서 하니까 '야, 색깔을 보라.' 그래. 허허허, 그랬던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그렇게 한 것도 이것이 무슨 뭐 경을 보고 설법을 듣고 뭐, 절집에 왕래를 자주 하고 이랬어야 알지. 그래서 어느 큰스님을 찾아가서 점검을 자주 했던 거지. 내가 그렇게 발부터 들어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도 모두 발부터 들어서지 않아. 이진 그냥 결사적으로 발부터 들어서야지 돌이 아닌 까닭에 너는 너고 나는 나기 때문에 발부터 들어서야 된다 이 소리야. 그냥 너는 너. '대행 스님은 저기 그냥 계시니까 난 여기 있으니까' 이력하고, 제주도에서도 그렇게 지내고 있거든, 응?

그런데 모두가 돌이 아닌 까닭에 따로따로, 모습은 따로따로 돼있는 거야. 저 바. (천정의 전등을 각각 가리키시고) 셋이 다 따로따로 있잖아? 그렇지만 전력이 똑같은데 어찌 따로따로 있는 거냐 이거지. 전력이 없다면 저거 빈 전구밖에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적적 때버리겠지. 마음대로들 이진 자유니까, 공부를 하고 못 하고는 자유야. 그러니까 먼저 들어오고 나중 들어오고 그게 없습니다. 이 선택을 이어받는 데는 나중 들어오고 먼저 들어오고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 위 법문은 1991년 6월 16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름이 한데 모였다가 흩어져서
땀 구름하고 또 다시 모이듯이
인간도 사대로 흩어져서 바람으로
물로 불로 흩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원점으로 도로 돌아갔다가 다시 부모의
뼈와 살을 받아서 몸을 받아서 몸을 받되
그것이 한데 모여서 거기 가서 다시 또
태어나서 인간으로 성장이 돼요

는 아파서, 언젠가는 사대(四大)가 흩어져서 허망한 게 아니라 원점으로 돌아갈 때 한데 모였다가, 구름이 한데 모였다가 흩어져서 땀 구름하고 또 다시 모이듯이, 인간도 사대로 흩어져서 바람으로 물로 불로 흩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원점으로 도로 돌아갔다가 다시 부모의 뼈와 살을 받아서 몸을 받되 그것이 한데 모여서 거기 가서 다시 또 태어나서 인간으로 성장이 되 나간요.

인간뿐만 아니라 마음을 잘못 썼다 하면 소로 태어나고, 독사라도 태어날 수 있고, 개로도 태어날 수 있고, 만약에 마음을 잘 썼다면 사람으로 태어나되 장관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대통령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이 세상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통달한 성인이, 성자가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달린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 마음, 그 마음이 천차만별의 이 모든 살림살이들을 들고 내는데 그놈이 하는 거로구나 하고 믿고 거기에 맡겨놓고 좀더 한 걸음 뛰어넘을 수 있는, 도량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여분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좀더

먼은 고생도 덜했을 텐데, 그런 거를 사서 떨고 싶다가 그거를 지고 오면은 지고 오는 대로 옆 질러지면 그 귀한 물을 옆질렀다 이거죠. 신발은 반짝짜리 '게다'를 끌어야 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너무 내 인생을, 그렇게 재썩들이 가져왔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하 나도 누구 원망을 안 했습니다. 단 "엄마!" 이렇게 부를 거를, 이 속으로 "아빠!" 그리고는 아빠 한마디 목이 메어서 불러놓고는 우는 거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 나이에, 아홉 살부터 말입니다. 세상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쌍한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어떡하면, 어떡하면 있는 사람 거를 흠쳐다가, 허허허, 그 고생하는 사람한테 몰래 밤중에 갖다가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굶고 부항이 났을 때 이거를 흠쳐다 주어서 거기가 갖다가 놓으면, 그거를 아침에 보면은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생각에서 밥집을 이루지 못한 채 엉뚱한 생각에 밤을 허영게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이 밀고 나가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를 나는 아주 자

들은 좀 낫겠지만 나야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나는 거지가 아니라 돈 몇 푼 주는 것도 받지 않았죠. 그저 다만 얻어먹은 거는 간장뭇물엔 없었습니다. 가다가 쓰러져도 그대로 인생이 한 번 죽는 거, 죽으면 죽는 대로 살면 사는 대로 그냥 걸어갔을 뿐이죠. 나한테 타치는 거 마다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러더군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조그마한 초립동이 아니, 조그마한 동자가 행전을 삼그렇게 매고 키 하나를 들고신 허공에 나섰습니다. 허허허, 그것이 은사가 키 하나를 들려서 내보낸 거죠. 그거를 영 스무살이 되도록 몰랐다가 그게 의문이 났습니다. '키 하나를 쥐서 내보내다니 그게 참, 그게 뭐가?'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비는 떨어졌으나 까부르질 않아서, 닭아라 이 소리지. 비는 다 절구질을 해서 떨어졌으나 아이, 까부러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까부르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키 하나를 쥐서 내보냈을 수밖에, 음! 그 어린 게 키 하나를 들고 사막 같은, 엇그저께 그 콜로라도에 갔을 때의 그 끝도 없는 사막과 같았어요. 끝도 없어,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층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 출가익식 지원**
신부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익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교는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국제붓다자비봉사단)**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리지학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